

Time



Ho Tzu Nyen

the

cloud

호추니엔:  
시간과  
클라우드

2024.  
6.4.  
- 8.4.

공동주최  
아트선재센터,  
싱가포르아트뮤지엄

전시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작품제작지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A

SJ

C

아트선재센터는 싱가포르 작가 호추니엔의 전시, 《호추니엔: 시간과 클라우드》를 개최합니다. 20년에 걸친 호추니엔의 작업 세계를 밀도 있게 다루는 이 전시는 동시대 아시아의 복잡한 근대성의 층위를 지리적 국가적 경계를 넘어, 사회 문화 정치 경제를 가로지르는 호추니엔의 작업세계를 탐구합니다.

《호추니엔: 시간과 클라우드》는 작가의 작업세계를 <미지의 구름>(2011), <호텔 아포리아>(2019), <시간(타임)의 티>(2023-2024)등 3점의 작품을 중심으로 놓고,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이 작품들은 동시대 아시아인의 삶과 그 현재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자 그 해답을 찾아가는 작가의 광대한 여행입니다. 이 작품들은 일상-정치/문화-시간으로 이어지는 작가의 근대성에 대한 탐구를 집중적으로 드러냅니다. 작가는 서구와 아시아, 아시아와 아시아, 제국과 식민지, 식민지와 식민지가 만나고 충돌하며 형성되는 새로운 공간으로써 아시아의 현재를 연구합니다. 작가의 이러한 탐구는 이분법적 대립 구조를 넘어, 수많은 다양한 근대성이 충돌하고 부서지며, 그것을 이해하면서도 오해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생성하고 확장하는 아시아의 현재를 드러냅니다.

이번 전시에서 ‘클라우드, 구름’은 중의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클라우드, 구름은 하늘에 떠 다니는 자연 현상으로써 구름을 의미하기도 하며, 신화적이고 영적이며 종교적인 상징물이기도 하고, 모호하고 알 수 없는 어떤 미지의 대상이기도 하며, 미술에서 화면을 나누는 시각적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액세스 할 수 있는 서버와 이러한 서버에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작가에게 클라우드는 이미지를 드러내기도 감추기도 하는 빈 화면, 스크린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구름의 의미는 작가 호추니엔의 작업세계를

관통하며, 그의 세계관을 개념적으로 물리적으로 미학적으로 작동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전시는 아시아에서 근대적 경험에 대한 경외와 감탄, 환상과 공포, 희망과 좌절이 동시대 사회 문화 속에서 여전히 유령처럼 부유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제국주의의 여파와 식민주의의 경험, 그리고 이러한 시간을 지나온 사람들의 현재와 모순적이지만 해학적인 상황들은 전시장에 펼쳐지며, 다양한 근대성들이 충돌하고 오해하며, 전유하고 다시 화해하면서 만들어진 우리의 현재가 광대한 우주적 시간의 흐름 속에 펼쳐지는 상황을 연출합니다. 호추니엔은 제국주의적 근대성이 야기한 파국인 식민주의를 피식민자로서 관통한 많은 아시아의 역사를 탐구하면서, 아시아가 제국주의적 근대성이 야기한 힘의 논리와 어떻게 교섭하고, 그것을 전유하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으며, 자신의 시간성을 발명하고 있는지를 이번 전시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2022년 아트선재센터와 싱가포르아트뮤지엄은 앰플러스 홍콩과 협력하여, 도쿄도현대미술관, 샤프자미술재단, 한국국제문화교류재단의 지원을 받아 호추니엔의 예술 세계를 탐구하고, <시간(타임)의 티(T for Time)>을 공동 제작하기 위해 협력했습니다. 이 공동 작업은 두 가지 버전의 전시, 《호추니엔: 시간과 호랑이(Ho Tzu Nyen: Time & the Tiger)》(2023.11.24. - 2024. 3. 3., 싱가포르아트뮤지엄), 《호추니엔: 시간과 클라우드》(2024. 6. 4. - 2024. 8. 4., 아트선재센터)로 이어졌습니다. 이 두 전시는 아트선재센터와 싱가포르아트뮤지엄의 협업의 서로 다른 결과물이며, 동시대 미술에 집중하는 아시아 두 미술기관의 새로운 협업모델의 결과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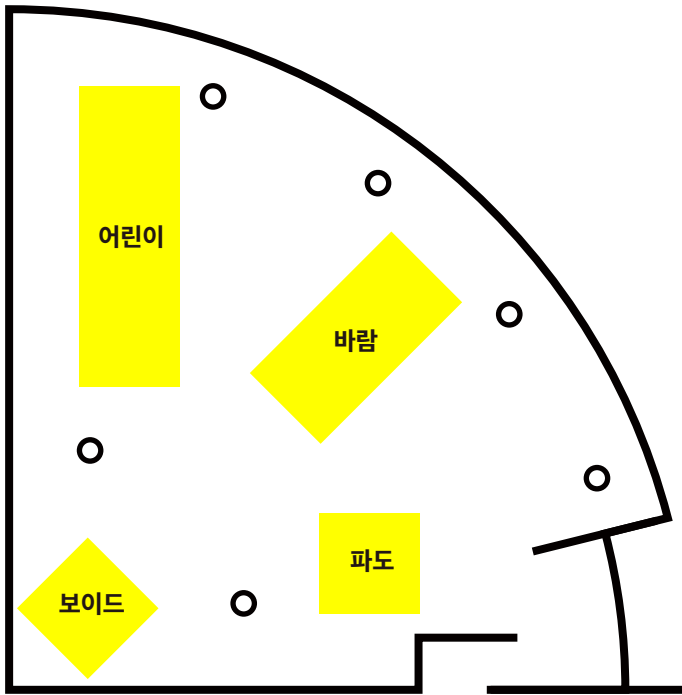
# 호추니엔

호추니엔(b.1976)은 역사적, 철학적 텍스트를 기반으로 작업하는 싱가포르의 미디어 아티스트이자 영화감독입니다.

<동남아시아 비평사전>을 비롯한 일련의 작업들은 서구의 변증법적 역사관에서 획일적으로 치부되어 온 동남아시아, 나아가 아시아의 개별적 문화 정체성과 독특한 근대성을 논합니다. 작가는 순차적 재생이 아닌 알고리즘으로 재생되는 영상작업을 통해 역사의 단일한 시간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과거와 현재가 중첩, 충돌되며 파생되는 아시아의 다차원적 시공간을 다룹니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에이전트의 A》(도쿄도미술관, 2024), 《호추니엔: 시간과 호랑이》(싱가포르아트뮤지엄, 2023), 《보이스 오브 보이즈》(일본 야마구치 정보예술센터, 2021), 《미지의 구름》(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2015) 등이 있으며, 주요 그룹전은 《밤의 세헤라자데》(팔레 드 도쿄, 파리, 2022), 《상상된 경계들》(제12회 광주비엔날레, 2018), 《아시아 연결하기》(아시아 아트 아카이브, 홍콩, 2014) 등이 있습니다.

작가는 2011년 제54회 베니스비엔날레 싱가포르 파빌리온 대표 작가였으며, 대만 작가 슈 차 웨이(Hsu Chiawei)와 제7회 아시아미술비엔날레 《산과 바다를 넘어온 이방인들》(국립대만미술관)을 공동 기획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베를린 DAAD 장학금을 받았고, 2015년 APB 재단의 시그니처 예술 대상을 수상했으며, 2024 샤넬 넥스트 프라이즈를 수상했습니다.



## 호텔 아포리아, 2019

6채널 프로젝션(4:3포맷, 컬러, 24채널 사운드), 팬, 조명, 변환기, 컨트롤시스템,  
84분 1초(파도: 12 분; 바람: 24 분; 보이드: 24 분 1초; 어린이: 24 분).  
싱가포르아트뮤지엄 컬렉션

2019 아이치트리엔날레의 커미션 작품인 <호텔 아포리아>는 일본 다이쇼 시대에 아이치현 도요타시에 지어진 일본 전통 여관(료칸)인 기라쿠테이에서 장소특정적 설치 작품으로 제작 상영되었습니다. 기라쿠테이는 나고야해군항공대의 '가미카제' 특수공격부대 중 하나인 구사나기 부대의 마지막 연회장소로 사용된 곳입니다. 조종사들은 (일본에서는 태평양 전쟁으로 지칭하는) 제2차세계대전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오키나와로 출발하기전 그곳에서 마지막 날을 보냈습니다. 교토학파와 일본제국주의에 대해서 연구하던 작가는 큐레이터 요코 노세씨의 초대로 기라쿠테이에서 작업을 보여주는 것을 제안받습니다. 작가는 이 공간이 오래된 일본식 전통여관에 머물지 않고, 제2차세계대전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 장소임을 알게 되었고, 큐레이터, 드라마투르거, 번역가 등과 이 공간이

일본제국주의와 맺고 있는 역사를 연구하고 토론하며 이 작업을 완성했습니다.

이 작업은 ‘파도(The Waves)’, ‘바람(The Wind)’, ‘보이드(The Void)’, ‘어린이(The Children)’이라는 소제목으로 구성된 6채널영상작업과 바람을 천천히 일으키는 거대한 팬으로 구성됩니다. 영상 작품의 대본은 작가, 큐레이터, 드라마투르거, 번역가 등과 교환한 편지, 작가가 이 작업을 위해 초대한 역사적 인물들의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은 기라쿠테이의 당시 여주인, 교토 학파의 학자들, 가마키제 특공대 부대원 2명 그리고 선전영화 제작을 위해 징집되어 싱가포르에 파견된 영화감독 야스지로 오즈와 선전단의 일원으로 징집되어 인도네시아에 파견된 애니메이터 류이치 요코야마 등입니다. 그리고 작가가 선택, 편집한 영상물들은, 제2차세계대전 당시 기록 영화와 오즈의 영화 <만춘>(1949), 요코야마의 선전만화영화 <잠수함의 후쿠짱>(1944) 등입니다. 작가는 자신을 포함한 이 작업과 연관된 인물들의 문장들을 영상 이미지들과 병치시켜 장소특정적 설치 작업을 만들었습니다.

작가는 <호텔 아포리아>를 통해서 일본 제국주의의 분열과 자기에 그리고 여파를 비선형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작가는 자신이 선택한 영상물 속 인물들의 얼굴을 지우고, 영상 및 소리 그리고 설치물들 사이로 바람을 불게 합니다. 영상이 일본제국주의에 관한 기억의 잔해들로 볼 수 있다면, 지워진 영상 속 인물들의 얼굴은 그 제국주의의 잔재와 파국적 결과를 익명화하거나 그 과거를 과거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영향이 현재의 투명한 시간 속에 존재하며, 따라서 오늘날에도 언제든지 다시 작동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시간은 전시장을 채우는 바람과 함께 흐르며, 비어 있음, 즉, 보이드의 존재를 허무하게 드러냅니다.

**호텔 아포리아 Hotel Aporia, 2019**

6-channel video projections (4:3 format, color, and 24-channel sound), automated fan, lights, transducers and show control system, 84 min 1 sec (The Waves: 12 min; The Wind: 24 min; The Void 24 min 1 sec; The Children: 24 min).

**Direction, script, edit: Ho Tzu Nyen**

**Research, script contributor: Yoko Nose**

**Dramaturgy, script, research, translator: Tomoyuki Arai**

**Project Manager, translator, script contributor: Kazue Suzuki**

**Rotoscoping: Vividthree**

**Technical management & lighting: Andy Lim**

**Technician: Shinji Tanaka**

**Producer (Sound): NOEL-KIT**

**Sound design: Phasma**

**Voices: Agito, Kawamoto Tomoe, Shibuya Tomoko, Tsurumai Yuma, Yabuki, Yamashita Keiko**

이 프로젝트는 노세 요코가 기획한 2019년 아이치 트리엔날레 《너/우리의 열정 길들이기》의 커미션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 관람 안내

## 아트선재센터

### 관람시간

화요일-일요일 오후12시-7시

월요일 휴관

### 관람료(전시 통합권)

10,000원: 25세-64세

7,000원: 19세-24세, 65세 이상, 예술인패스 소지자

5,000원: 9세-18세

무료: 그 외 연령 및 장애인, ICOM·CIMAM·서울시미술관협의회 카드 소지자

관람권 예약은 아트선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02-733-8949 | [artsonje.press@gmail.com](mailto:artsonje.press@gmail.com)

홈페이지 [www.artsonje.org](http://www.artsonje.org)

주소 0306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3길 87

© 2024. Art Sonje Center all rights reserved.

이 출판물에 수록된 글에 대한 저작권은 아트선재센터에 있으며, 출판권은 아트선재센터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와 출판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